

추억의 7080 총장축제 폐막

# 흥행·상권 살리기 '두 토끼' 잡았다

## 추억의 전시관 등 호평 60여만명 찾아 노점상 호객·바가지 요금 관람객 눈살

광주 도심 대표거리 축제인 '제 6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18일 밤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총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 광주 도심에서 옛새 동안 진행된 축제는 지친 일상에서 '낭만을 꿈꾸던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는 찬사와 함께 '유명 가수 공연 일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흥행 성공 상권 활성화**=올해로 여섯 번째 치른 총장축제는 과거보다 많은 관람객이 축제 현장을 찾아 흥행에는 대성공을

거뒀다. 한국시리즈가 광주에서 열린 지난 16일과 17일에도 총장로와 금남로는 축제 열기가 식지 않았다.

총장축제 마지막 날인 18일 광주시 동구와 동부경찰에 따르면 옛새 동안의 축제기간 동안 축제를 즐긴 관람객은 60만명에 이른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총장로와 금남로는 북새통을 이뤘다.

또 총장축제 기간 동안 총장로를 중심으로 한 상가 대부분이 물품 할인에 동참하는

'총장로 스트리트 세일'을 통해 매출 30~40%가 증가하는 등 옛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전했다.

◇**추억의 전시관 등 관람객 호평**=가을밤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된 총장축제 프로그램 중 추억의 동창회와 추억의 전시관 등은 '추억'이라는 축제 취지에 맞고 '흔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람객에게 찬사를 받았다.

축제기간 동안 고교 동창이나 동문, 은사를 만날 수 있는 동창회는 중·장년층에게, 1970~80년대 총장로를 옮겨 놓은 듯한 추억의 전시관은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특히 사랑을 받았다. 또 특별무대에서 7080 가수들이 전하는 '추억의 음악'은 퇴근길 중·장년층 관람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또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가들이 그려주는 초상화나 인디언 복장

을 하고 아프리카 음악을 들려주는 거리 공연도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색 없고 운영 미숙 관람객 불편**=중·장년층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한 올해 총장축제는 '추억'이라는 축제 주제를 살린 프로그램보다 유명가수 공연에 공을 들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노점상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해서는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동구 관계자는 "총장축제가 도심상권 활성화와 세대 통합의 발판이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거리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짜임새 있고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루시 연차총회 참석자들이 방문하게 될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제영사관.

## 세계 '빛의 도시' 광주로

### 19일부터 4일간 세계 빛도시연합 연차총회

빛으로 도시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모여 만든 국제기구인 세계빛도시연합(LUCI·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 연차총회가 19일 개막한다.

세계 30여개 도시 관계자와 조명 디자이너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2009 연차총회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집행위원 회의, 정기총회, 빛 관련 콘퍼런스, 디자인 비엔날레 관람 등 시디투어 순으로 치러진다.

특히 19일 저녁에는 'City.People.Light' 시상식이 진행된다. 'City.People.Light'는 LUCI가 필립스사의 후원으로 그 해의 가장 훌륭한 경관도시를 선정하는 도시관련 상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08년에는 청계천 프로젝트를 진행한 서울시가 27개국 도시들과 경합을 통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이날 행사 참석차 광주를 찾은 올리비에 피콜린 필립스 아태 조명 사장을 만나 광주가 세계적인 빛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가 선도해온 광산업을 알리고, LUCI 총회기간 중 필립스에서 주관하는 'City·People·Light' 시상식과 내년

에 개최될 광엑스포 등을 통한 광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어 20일에 진행될 콘퍼런스는 'Focus on Korea Lights(한국의 빛)'을 주제로 광주시와 서울시, 김해시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돼 한국의 빛을 세계에 소개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 참석자들은 또 내년에 개막할 광주세계광엑스포에 맞춰 건립된 주제영사관 '루미보울(Lumibowl)'을 방문, 3D 입체 애니메이션 주제영화 'SEED LIGHT'를 관람하게 되며, 빛과 음악의 조화를 아름다운 멀티미디어 쇼로 보여 줄 빛 분수도 감상하게 된다.

홍진태 광엑스포추진단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는 빛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세계적인 빛의 도시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LUCI 회원도시로 가입한 뒤 이듬해 5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LUCI집행위원회 심사에서 올 LUCI총회를 유치했다. LUCI는 프랑스 리옹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31개국, 59개 도시와 26개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8일 총장축제의 마지막 날 행사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배우들과 시민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6일간 진행된 총장축제는 이날 밤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 갔다 신임판사 10명중 4명 특목고·강남고교 출신

### 사법부 '주류' 명성 지방 명문고 몰락

최근 10년간 법복을 입은 신임판사 10명 중 4명이 특목고·강남고교 출신이란 사실은 '개천에서 용 나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 속담집에서 사라질 때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이후 대법원의 판사 임용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999년 9.6%(15명)이던 특목고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고교 출신 신규 판사의 비율은 2001년 12.4%(23명), 2003년 20.2%(35명), 2005년 25.2%(37명),

2007년 33.3%(51명), 2009년 37.0%(51명)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999년 이후 신임 판사 중 상고·공고 등 실업계 고교 출신은 1999년 1명(부산상고), 2000년 1명(서울공고), 2001년 3명(유한공고, 덕수상고, 이리상고), 2003·2004년 각 1명(광주여상), 2007년 1명(수도전기공고), 2009년 1명(서울여자상고) 등 9명에 불과했다.

지방 출신이 사법시험이라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 1999~2002년까지 매년 전체 신규 판사의 40%가량을 차지하던 광역시 출신은 올

해 26.1%(36명)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군 출신 비율도 2001년 34.8%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8년 20.8%까지 떨어졌다.

과거 사법부에서 '주류'로 인정받던 지방 명문고의 몰락 현상도 뚜렷했다.

비평준화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던 광주제일고와 경북고 출신 판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법원에 32명, 30명이 남아 인원수 기준으로 3위, 5위를 유지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신임 판사를 1년에 한명 남짓한 13명과 1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 정부 상징체계 연내 개편

### 무궁화 로고 사라진다

무궁화 로고 안에 '정부'라고 표기된 대한민국의 상징(GI : government identity)이 연말까지 전면 개편된다.

국가브랜드위(위원장 어윤대)는 현재 추진중인 '대한민국 정부 상징 체계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무궁화 모양의 정부 로고는 완

전히 폐지되고, 정부 부처별로 다른 로고도 새 로고로 통일되거나 병행 사용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최상철)와 협력, 정부 상징체계 개편 작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로고와 슬로건도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는 한도내에서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브랜드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상징 체계 개편을 통해 로고만 보고도 정부 부처인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늘의 별을 따다

## 독거노인 겨울나기 지체장애인 돕기성금 모금

355-B1지구 희관 건립기금조성을 위한  
백일우 시집출판 기념회

# 하늘의 별을 따다

입시 | 2009. 10. 30(월) 오후 4시  
장소 | 조선컨벤션 3층(상무지구 신영리)  
주최 | QA 광주시 노인협회 · 한국문인협회  
후원 | 한국재리어운스협회 355-B1지구희관  
특별후원 | 한국재리어운스협회 한국문인협회

백일우 시집은 국어재민서적출판 355-B1지구  
355-B1지구희관 건립을 위해

노년과 장애는 사회적 약자. 노년과 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백일우 시집은 국어재민서적출판 355-B1지구  
희관 건립을 위한 모금회입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010-9900-1111